

##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위해 살게 하려함이라”

### 러시아 통제 몰도바, 기독교 부흥 일어나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국가 몰도바(Moldova)에서 러시아의 강압 속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CBN뉴스가 4일 보도했다. ‘구주그리스도교회(Church of Christ Savior)’의 유리 세메뉴크(Yuriy Semenyuk)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2000년,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

그는 “내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열정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 곳은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곳이다’라고 말

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선교사로서 첫 7년간의 선교사역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로 “나는 정부 인사들, 경찰, KGB 요원, 그리고 갱단원들로부터 표적이 되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갱단원이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아이들을 납치하려고 했다. 한 번은 납치되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덕분에 탈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00년 5월의 한 영상에는 세메뉴크 목사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지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종종 갱단이 지배하는 지역으로도 그는 메시지를 전하러 갔다. 세메뉴크 목사는 “갱단원 중 일부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들의 아내들도 복음주의자가 됐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1990년에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자체 정부, 통화를 결정하고 국가체제를 갖췄다. 비록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 지역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게 됐다. 현재 러시아는 이곳에 약 2,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이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 세메뉴크 목사가 러시아의 요원들로부터 감시와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유리, 아직 살아 있어. 오늘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구주그리스도교회는 24년이 지난 지금 주일마다 수백 명이 교회에 모여, 그중 많은 이들이 복음 메시지를 처음 듣는다. 목사는 교회가 성장한 비결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돕는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 대다수는 러시아의 일부가 되길 원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곧 자신들의 문턱에도 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세메뉴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남아있을 계획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전쟁이든 아니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우리의 소명은 언제나 같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5:14,15)**

하나님, 러시아의 통제 가운데 있는 몰도바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을 통해 박해 가운데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부와 갱단의 표적이 되어 행해지는 괴롭힘 속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을 이들도 발견하게 하시며 죄에서 돌이켜 주를 위해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같은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열방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힘입어 복음 전파의 소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미국 국무부, 러 쿠르스크서 북한군 전투 참여 확인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견된 북한군들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타드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1만 명 이상의 북한군들 대부분이 러 동부 쿠르스크주로 파견돼 러시아 군과 함께 작전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을 포함해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군대와 얼마나 잘 통합하느냐에 따라 전투 성과가 결정될 것”이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유럽연합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전 이후 방어에 집중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서, 쿠르스크 지역 일부를 장악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는 쿠르스크에서 격렬한 전투에 북한군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교도통신에 전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피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시편 52:1-2,8)**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들이 실제 전쟁에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악을 피하며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러시아와 북한을 꾸짖어 주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여 주소서. 전쟁의 황폐함이 더한 어두움 가운데 더욱 밝은 빛으로 임하시어 모든 영혼에 주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감람나무같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 ▲ 에콰도르, 교도소 내 폭동으로 15명 사망·14명 부상

남미 에콰도르의 교도소 내 폭동으로 30명 가까운 수감자가 숨지거나 다쳤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에콰도르 교정청(SNAI)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새벽 과야킬에 있는 리토랄 교도소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며 “현재는 교도관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탈옥수 발생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군 장병과 경찰관이 함께 대규모 수색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소는 과밀 수용 문제와 갱단의 영향력 싸움으로 인해 폭력 사태가 빈번하며, 교도관이 인질로 잡히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도소를 포함한 에콰도르 해안 지역은 마약 밀매 통로로 악용되며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도소 내부 갱단이 외부 범죄를 지시하는 사례도 있어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노보아 대통령은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테러 조직 해체 작전을 진행 중이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에스겔 18:31-32)**

하나님, 나라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갱단 해체 작전을 진행하고 있지만 또다시 일어난 교도소 내 폭동과 탈옥으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에콰도르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올해만 수천 명이 죽어가는 범죄와 폭력이 이들의 일상이 되지 않도록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소서. 또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을 돌보시고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모두가 만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백성들로 회복하소서.

##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도널드 트럼프, 미 47대 대통령 당선...“나의 승리에 하나님의 손길 있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5일 밤(현지시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주에서 해리스를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가족과 캠페인 팀과 함께 플로리다 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 지지자들에게 “전례 없는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이것은, 제 생각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운동이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운동은 새로운 중요성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유 있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것은 미국 국민에게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암살 시도에 대해 언급하며 트럼프는 자신의 승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유가 있어서 구해주셨다고 말해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구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되돌리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총격을 당했을 때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다. 이 공격에서 한 집회 참석자가 사망했고, 20세의 범인 토마스 매튜 크룩스(Thomas Matthew Crooks)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9월에는 플로리다의 트럼프 국제 골프 클럽에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으나, 트럼프는 58세의 범인 라이언 웨슬리 루스(Ryan Wesley Routh)의 공격에서 생존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19세기 민주당원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이후로 두 비연속 임기를 가진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워싱턴포스트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56%)와 개신교/기타 기독교인(62%)의 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전체 유권자의 22%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했다(81%). 또한 낙태가 불법이어야 한다고 믿는 유권자의 90%도 트럼프를 지지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 복음주의자 프랭클린 그레이엄(Franklin Graham) 목사는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J. 트럼프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이 매일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길 기도합니다”라고 썼다.

기독교 변증가 데이비드 로버트슨(David Robertson)은 X에 이번 선거 결과를 “놀랍다”고 표현하면서 “나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승리와 다수의 투표 확보, 공화당의 상원 승리, 그리고 라틴계, 아랍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대거 트럼프에게 투표한 것. 해리스가 세 배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주류 언론과 무수한 유명 인사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6-7,10)**

하나님,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을 주께 위탁드립니다. 자신의 생명과 승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말하는 그의 고백과 같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주님뿐이심을 이후의 발걸음을 통해 더욱 실재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문제가 끊임없이 들리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외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영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미국 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국민 25% “한국 사회 안전하지 않아”

만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25.6%가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28.9%로 2년 전보다 4.4%p 감소했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5.6%로 증가했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17.9%)와 경제적 위험(16.5%)이 가장 크게 꼽혔고, 개인정보 유출(57.6%)과 정보 보안(42.2%)에 대한 불안도 컸다. 밤길 불안감은 여성(44.9%)이 남성(15.8%)보다 높았다. 환경 불안 요인으로는 미세먼지(67.4%)와 기후변화(53.2%)가 주요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비율은 4.8%로, 주된 이유는 질환-우울감(37.2%)과 경제적 어려움(25.8%)이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사무엘하 22:31-33)**

하나님, 국민 4명 중 1명이 한국 사회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사회, 치안, 환경, 정신 건강 등 여러 문제로 믿음하고 있는 이 땅을 돌봐주십시오. 거룩함의 회복이 대한민국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도에서 벗어나 여호와와 진실한 말씀을 경히 여긴 죄악을 자복하며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이 없음을 모두가 깨달아 견고한 요새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 필리핀에 한달새 태풍 5개 덮쳐…‘기후변화 직격탄’

기후변화로 태풍 발생이 더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면서 필리핀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태풍이 다섯 차례나 덮쳐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복구 작업마저 장벽에 부딪혔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부터 태풍 ‘짜미’를 시작으로 ‘콩레이’, ‘인싱’, ‘도라지’ 등 4개의 태풍이 잇따라 필리핀을 타격한 데 이어 태풍 ‘우사기’가 곧 필리핀 상륙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현재 괌 근처에 있는 태풍 만이도 다음 주 초 필리핀 북동부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필리핀 기상 당국이 전망했다. 현재 필리핀을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활동 중인 태풍은 인싱, 도라지, 우사기, 만이 등 4개에 이른다. 이 지역에서 태풍 4개가 동시에 활동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며, 11월 기준으로는 195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라고 일본 기상청이 CNN에 밝혔다. 태풍으로 입은 피해를 채 복구하기도 전에 다음 태풍이 몰아치면서 피해 지역은 기진맥진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역사회가 태풍의 충격에서 회복하려고 하자마자 다음 태풍이 다시 강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응 역량이 소진되고 예산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필리핀에서는 통상 연간 20개가량의 태풍이 지나가곤 하지만, 이번처럼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의 태풍 피해를 입는 것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시편 55:16-17)**

하나님, 한 달 사이에 태풍이 다섯 차례나 덮쳐 환난에 환난을 더한 이 땅과 함께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계속되는 재난으로 인해 구조와 수색작업을 반복하는 대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깨달아 모든 과정에 선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소서. 또한 가족과 터전을 잃고 절망감에 심령이 낙담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때에도 필리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먼저 받는 교회가 십자가의 나팔수 되어 복음을 외치게 하소서. 주를 구하고 찾는 자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동남아 국가들, 기독교 박해 여전하다...실종, 구금, 태형 등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기독교 박해가 용인되거나 적극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1일 전했다.

브루나이에서 기독교인이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없다. 또한, 2023년에는 브루나이 당국이 비이슬람 종교 집회를 감시하고 무슬림이 참석하지 않았는지, 설교에서 이슬람에 반하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에서는 타트마도(Tatmadaw)로 알려진 군부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제출된 서면 증언에서 타트마도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강화했다며 “타트마도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과 도시를 파괴하고 불태우고 있다. 군대는 목사 및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 구금, 기소, 고문, 살해하고 있으며, 교회, 수도원, 학교, 종교 건물도 불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성모독법에 따라 이슬람을 비판한 기독교인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기독교인 유튜버 루디 시마모라(Rudi Simamora)가 이슬람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로 1년 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이슬람 성직자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무함마드 케이스(Muhammad Kace)는 이슬람과 예언자 무함마드를 반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라오스에서는 당국이 기독교인을 상대로 지속적 차별을 일삼고 있다.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 관계자는 2023년에 당국이 캄무안(Khammouane) 주에 있는 79개 기독교 가정을 본국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모독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지역에 따라 무슬림에게 신앙을 전한 비무슬림은 투옥되거나 태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은 여전히 기독교인을 괴롭히고 투옥하며, 특히 하 몬 가톨릭 및 몬타냐드 개신교 그룹을 겨냥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 국무부의 종교 자유 특별 감시 목록에 올라 있으며,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실종, 구금, 투옥된 기독교인은 45명에 달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마태복음 10:16-18)**

하나님,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받는 믿음의 증인들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법정에 끌려가 채찍에 맞고 환란을 당하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은혜로 굳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게 하소서. 고난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동남아에 열매로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여 주셔서 박해국이 아닌 선교하는 나라로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 ▲ 미얀마 군부, 교회 십자가 철거 지시

미얀마 군사 정권이 교회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사전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션(ICC)이 7일 보도했다. 군부는 라카인주의 주도인 시트웨(Sittwe)의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을 수 없으며, 예배를 진행하려면 경찰의 지침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고 지역 경찰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 교인은 “지난달 우리는 교회임을 알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설치했지만, 경찰이 찾아와 철거를 요구했다”며 “우리는 십자가를 세우기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직접 철거를 거부하고 경찰이 철거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라칸군(AA)이 통제하는 지역의 기독교 소수자들에게 대한 종교 자유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시트웨 주민은 “아라칸군은 카우타우(Kyauktaw)에서 현지 기독교 목사 5명을 구금했다”며 “지역 기독교 공동체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점점 더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새로운 제한 조치는 해당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꾸준히 침해하는 여러 조치들 중 하나로, 미얀마 군사 정권 하에서 소수 종교, 특히 기독교 공동체가 미래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라디아서 6:14)**

하나님, 교회에 십자가 설치를 금하고 철거를 요구하며 출석 인원과 모임까지 경찰의 지시를 따르게 하여 기독교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는 미얀마 군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의 장벽과 군부와 대치 상황에 있는 아라칸 군까지 현지 목사님을 잡아 가둬 정치적, 사회적 박해에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살펴 주옵소서. 고난이 더할 때도 은혜로 성도들을 붙드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어디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강건케 하소서.

### ▲ 이라크, 결혼 연령 18세→9세, 여성 양육·상속권 박탈

이라크 의회가 개인 신분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법적 결혼 연령을 18세에서 9세로 낮추고, 여성의 이혼, 자녀 양육권, 상속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7일 전했다. 1959년에 도입된 이라크 개인 신분법은 종교와 상관없이 가족의 사적 사항을 다루는 진보적인 법으로 평가받았으나, 보수적인 시아파 정당 연합은 개정안을 통해 이슬람법의 엄격한 해석을 따른다고 주장하며 어린 소녀들을 “부도덕한 관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9월 16일에 두 번째 심의를 통과했으며, 의회 다수를 차지한 시아파 정당들이 지지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로마서 6:12-13)**

하나님,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어린 소녀들을 정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이 악한 법을 막아주십시오. 사리아법을 근간으로 한 개정안으로 이라크를 더욱 이슬람화하려는 위정자들을 꾸짖으시고 죄를 합리화하여 영혼들을 몸의 사욕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파하소서. 어린 소녀들을 부도덕한 관계에서 보호하는 길은 오직 진리뿐이오니 이슬람의 헛된 가르침에 속아 있는 이 땅 영혼들의 눈을 밝히사 주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무기로 삼으사 주의 공의와 거룩함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